

세계화와 문화 - 상트 페테르부르크 · 소주 -

최연홍

시인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세계를 돌아다녀 본 사람들은 결국 문화이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고, 문학인이 문명의 정상(頂上)에 있음을 알게 된다.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엔 푸쉬킨이 있고, 중국 소주(蘇州)엔 장계(張繼)가 있음을 알게 된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이 푸쉬킨이고 당나라의 수도였던 소주를 대표하는 인물이 장계(張繼)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와 문화다.

정치와 경제가 문명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문화이 문명의 맨 앞에, 문명의 정상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이 나라도 아름다운 나라에 들게 되고, 지구 위의 빛나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예술의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곳곳에 예술인들의 흔적이 서려 있다. 그들의 향취와 발자취를 더듬어 들어가 보면 어느덧 도시가 아닌 예술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7월 초 무더운 오후가 저물던 한 젊은 친구가 세인트 레인의 그의 작은 방을 나와 서서히 약간은 머뭇거리면서 K다리 쪽으로 걸어 나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거리를 나도 걸어나갔다. 로디온 라스콜니코프가 늙은 전당포 주인을 죽이기 위해 걸어난 730걸음을 나도 똑같이 걸었다. 다리를 건넜다. 유스코브 궁전을 돌아 운하를 바라보고 있는 대형 6층짜리 건물로 걸어갔다. 어둠이 들어서고 있는 건물로 들어가 좁은 계단을 걸어가 4층에 다다른다. 벨을 누른다. 작중 인물처럼...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291년간의 수도. 피터 대제(大帝)가 ‘서양에로의 창’으로 이 도시를 건설했듯 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 알렉산더 브록과 같은 거장이 세계 문학을 향해 나타났다.

작가들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세계 문학 위에 올려놓았다. 거리, 운하, 궁전, 작가들이 살던 집, 그들이 걸던 거리, 바라보던 강, 역사가 거기 그대로 지금도 놓여 있다.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는 그래서 내게 사실과 문학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 도시는 도스토예프스키나 푸쉬킨이 살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구가 가까운 늪지대에 노예 노동으로 건축된 도시. 장마로 시달린 도시에 운하를 만들어 아름다운 도시로 변형시킨 제정 러시아.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도시를 이 세계에서 ‘가장 의도적이면서 추상적인 도시’로 규정했다. 이 도시 출신으로 구 소련을 떠나 미국에서 살다 죽은 브로드스키는 ‘서양으로 난 창’의 의미를 내게 말해 주었다. 그는 노벨 문학상 시인으로 “시인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소련 재판정에서 부르짖는 것으로 더 유명하다.

서울의 600년 역사 속에 종로가 수많은 작가와 시인들의 발자국을 각인하고 있듯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거리마다 역사가 각인되어 있다. 그것은 모스크바에서도 그랬다. 시인과 작가, 미술가, 예술가가 살던 집들은 역사적인 집들이 되어 있었다.

네바다 강의 「청동 기마병」이란 대형 조각품이 있다. 아이삭 성당 앞에 피터 대제가 말타고 있는 형상이다. 자연을 정복한 인물의 상징이다. 푸쉬킨이 쓴 「청동 기마병」이란 시가 이 조각에서 연유했음을 알게 된다. 상당히 많은 러시아 시인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시를 썼다. 푸쉬킨의 작품 속에 피터 대제는 영웅으로 나타나기도, 전제군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1824년대 홍수가 앗아간 생명들에 연민의 정을 보낸다. 홍수를 막은 피터 대제가 높이 말을 타고 있다.

“인생이 당신을 속이더라도 서글퍼하지 말라”던 푸쉬킨의 박물관이 거기 있다.

1837년 1월 27일 이 시인은 아내의 정부와 결투 끝에 부상당하고 그 집(박물관)으로 실려 온다. 그리고 이틀 후 죽는다. 그 집에는 총알이 뚫고 간 그의 조끼가 걸려 있다. 그 집에 있는 머리칼 한 줌도 인상적이다. 그의 부름은 몇 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그 집을 찾아와 애도하게 했다.

보이카 가(街) 12번지. 푸쉬킨의 아파트엔 영원한 시인이 아직도 숨쉬고 있다. 에르미타쥐 박물관 뒤 모이카 강(江) 서쪽에 서 있다.

에르미타쥐 박물관은 러시아 황제의 여름 별장이었다. 그 안에 화려했던 제정 러시아의 금은 보석이 전시되고 있다. 그러나 상트 페테르부르크엔 러시아인 모두가 사랑하는 푸쉬킨의 집이 있다. 그의 아파트가 에르미타쥐 박물관보다 더 큰 박물관이 되어 있다.

공산주의 혁명의 거리도 있고, 레닌이 갇혀 있던 형무소도 거기 있다. 그러나 그 아무 것도 푸쉬킨의 작은 아파트보다 더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한다.

시인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 현대 사회에서 시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내게 묻는다면 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찾아 보라고 말하고 싶다.

소 주

- 詩가 있는 여로

-여행-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내가 다 해독할 수 없는 역사
문학이
오히려 나를 유혹하는구나.

높은 하늘, 넓은 바다,
피부빛이 다른 사람들
하나뿐인 지구의 아름다운 존재가
나를 유인하는구나.

은전을 모두 길 위에 뿌리는
낭만주의자.

조그만 나라로부터
주어진 일상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조금 더 큰 고향으로 돌아와
주어진 일상으로부터
새로움을 찾아
활력을 찾는다.

일상의 생활이 산문이라면 여로는 시(詩)가 된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산문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시가 된다.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정해진 틀에서 밖으로 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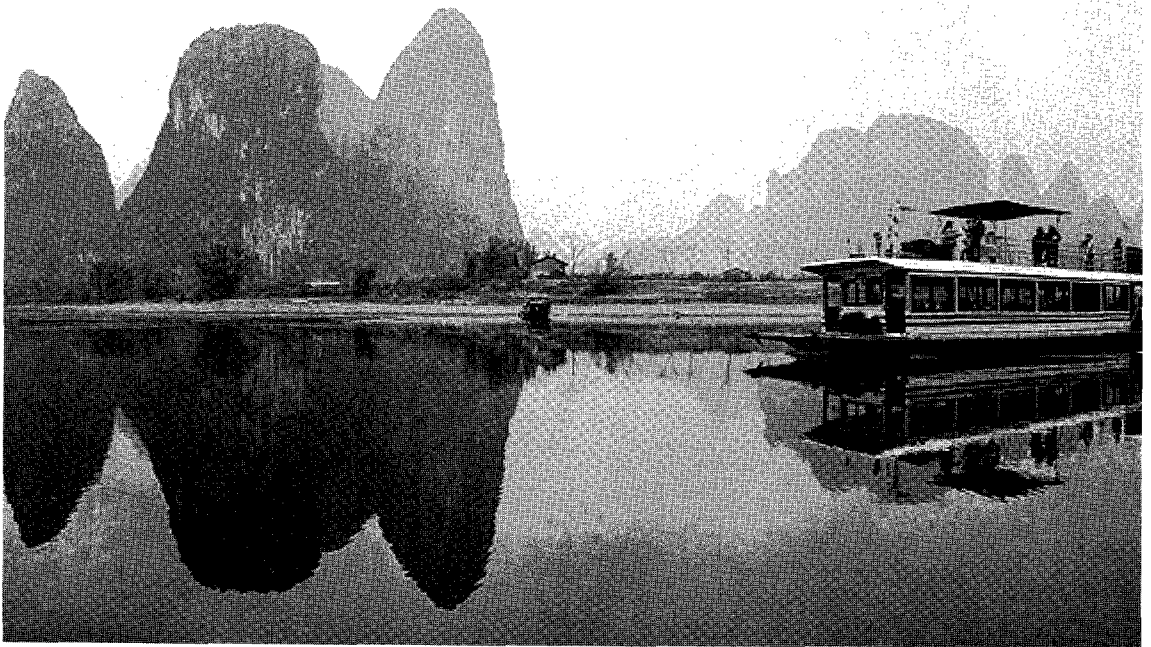
는 기쁨 속에 자유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 시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성품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 소풍으로부터 어른들의 먼 여행까지.

시는 아름다움을 그 안에 두고 있으며 자유는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가벼움을 동반한다. 주말이면 산에 오르는 이웃들 마음속에도 시가 있고 자유가 있다. 산 속에 사람(人)이 있으면 신선(神仙)이 된다.

나는 외국으로 떠나는 여행의 기쁨도 누리며 산다. 언어도 생소하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로 가서 그들의 언어에 귀 기울이고 역사를 배우고 문화도 터득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는 외국 시인을 초청해서 시 낭송 모임을 연다. 나는 우리말로 내 시를 낭송하고 미국 친구들이 영어로 번역된 시를 낭송한다. 나만이 아니라 세계의 저명한 시인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들이 그렇게 모국어로 그들의 시를 낭송하고 미국인들이 영어로 번역된 시를 낭송한다. 외국 시인의 영어가 훌륭해도 반드시 모국어로 시를 낭송하게 하는 의회도서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다양해서 좋다. 사람들의 얼굴, 건축, 미술관, 박물관이 나를 반긴다. 그리고 그들의 역



하는 기쁨은 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다. 나는 외국어에 능하지 않지만 그들의 말 듣기를 좋아한다. 불란서어든 러시아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나는 그들의 말을 듣는다. 언어의 음악성, 글자의 상형을 감지한다. 뜻을 몰라도.

사와 문화를 이해한다. 여로를 감사한다. '하나뿐인 지구'엔 생명이 있다. 생명은 아름다움의 원천이 아니겠는가?

여로에서 사람들은 여행의 기념비적인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나는 여로에서 사진 대신 시를 얻기를 좋아한

다. 그래서 내 시는 이미지(image)다. 나는 이미지스트.
마음에 드는 시 한편 얻으면 행복감에 젖는다.

나는 최근 중국 여행에서 다시 소주(蘇州)에 들렀다.
마르코폴로가 '동양의 베니스' 라고 부른 미녀(美女)와
비단의 도시로 유명하지만 장계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하다. 장계는 이태백이나 두보, 백거
이보다 못한 시인이지만 「풍교야박」이란 시 한편으로
중국 역사에 남는 시인이 되었다. 28자로 쓰여진 이 시
한 편이 그를 영원한 시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여기 그
의 시를 그대로 옮기고 우리말로 어설프게나마 번역해
우리 나라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月落烏啼霜滿天, 江楓漁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到聲客船

달은 저물고 까마귀는 서리 내리는 하늘아래 울고 가누나
풍교 밑에 떠있는 낚시 배에 쉼
희미한 불빛 소주성 너머 한산사를 비추고
절간의 종소리 내 뱃전에 닿아 한밤의 정막을 깨누나.

이 시인은 과거에 떨어지고 나서 그의 서글픈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한다. 당 시대의 한산사에는 지금
도 그 종이 있고 거기 가면 은은한 종소리를 들을 수 있
다. 한산사 옆의 다리 밑으로 운하가 그대로 있다.

나도 소주에 들려 시 한 편을 얻었으니 행복한 여로를
감사한다.

-蘇州에서-

당나라 사람들의 집, 거리, 정원,
탑, 절이 거기 있다
張繼의 楓橋夜泊이란
시 한편이
蘇州의 美女보다

비단 옷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어찌 하랴.

당신의 젓가슴,
허리,
둔부의
치수를 재어
비단옷
한벌
해주려는
내 뜻도
詩 한편보다
못한 것을
다시
寒山寺에 와서
알았노라

시는 견고한 나무의 고운 결같이 우리들 삶 속에 있
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숲속의 나무, 그 나무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시가 주는 의미를
터득하리라.

문학이나 예술도 그런 시와 같고, 나무와 같다. 목각
에서부터 짐을 짓는 재료로의 나무를 고마워하듯 우리
들에게 평화를 주는 숲을 고마워하듯 시를 고마워하고,
여행을 고마워한다. 자유로움을 고마워하며 산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숲길을 걷기 좋아
한다. 시가 있는 숲길을 끝없이 걸어간다. 그 이상의 행
복이 이 지상(地上)의 어디에 있겠는가?

세계화와 문화

세계화란 말이 한국 경제의 시장을 세계로 보자는 의

도를 안고 있는 듯 하다.

4천만이 사는 좁은 국토에서 더 이상 반도의 남부에 갇혀 살지 말고 밖으로 넓은 밖의 세계로 눈을 돌리자는 생각도 담겨 있는 듯 하다.

한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 이상이 세계로 가는 수출, 수입에 해당된다. 한국인들은 자원 결핍의, 그러나 인간 자원 풍요의 나라를 세계로 향한 경제 활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경제 활동은 그냥 경제 활동-그냥 돈을 버는 활동-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보는 경제 활동에도 그 나라 문화가 품위있게 반영되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돈을 잘 벌 수는 있다. 가발→의류→TV→자동차·전자 제품(컴퓨터)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대외 무역은 한국 문화의 반영이나 자원 없이 돈을 벌고 썼다. 벼락부자가 생겨나고, 거품 경제가 호황을 누렸다.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계에선 경제 개혁 구조 조정이란 말을 쓰고 있다.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말이다.

일본 경제, 한국 경제가 거품을 많이 물고 신음하고 있다. 일본·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 열중했다. 그러나 그 세계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몰랐다. 아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돈 버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일본·한국 경제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인 동물로서의 일본·한국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일본·한국인은 이 세계에 그만한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세계가 하나라는 사실, 이 지구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천체라는 사실을 알면 지나친 민족주의→국수주의는 금물이다. 돈을 버는 만큼 돈을 벌게 해 준 세계에 무엇인가 돌려주는 마음이 문화의 기초가 된다.

기업이 사회(시장이 있는 곳)에 이윤을 환원하는 것도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세계 시장은 세계 문화가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 세계 시장으로 한국 문화가 동반되어 나가야 한다. 한국 문화는 한국인의 문화·예술이면서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여야 한다.

흔히 문화는 그 민족의 혼이라고 말한다. 그 민족, 그 나라의 얼, 전통, 역사를 문화라고 말한다. 시인이자 작가·예술가는 그가 살아온 삶을 문학이나 행위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아무리 한 예술가의 삶, 한 나라의 전통, 역사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그의 예술이 그의 인생, 그의 국가,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다면 그의 예술은 세계적이기 어렵다. 물론 한 나라 안에서 유명한 시인·작가·미술가·무용가·공연 예술가들이 많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시인·작가는 거의 없고, 정명훈 남매와 장영주, 장한나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악인이다.

한국에는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서 활개치고 사는 문학 예술인들이 너무나 많다. 학자들·대학 교수들도 너무나 많다. 외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글 하나 발표하지 못한 위인들이 제법 오만하게 살고 있다. 세계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부르짖어 온 대통령도 있고, 고급 공무원·정치인들도 많다.

어찌 할 것인가? 세계화는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데 상품만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인(丈人) 예술이 깃든 정성의 상품이 그 상품이 쓰여지는 타국인에게 인류애가 담겨져 가게 하는 것이다. 그 상품이 유용하게 쓰이는 곳마다 몇 만리 밖에서도 한국인의 혼, 한국인의 장인 정신, 한국인의 전통, 역사를 감탄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미국 땅이건, 러시아의 땅이건 적도의 열대 나라이건 한국인의 정성이 들어야 한다. 그것이 세계화다.

진정한 세계화는 세계인들이 한국을 발견하게 하는 감동, 감탄, 명망일 것이다. ☸